

효고 북부에 있는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 사이에 위치한 야카타마치는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역참 마을이었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광산에서 채굴된 은은 주로 도보로 수송되었는데, 은은 당시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자주 야카타마치를 방문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후 메이지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기술자들은 마차로 은을 수송하기 위한 근대적인 도로 건설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1876년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차길을 따라 가장 번창한 역참 마을이었던 야카타마치는 전성기에는 하타고(여관)가 9곳, 술집이 6곳, 대부업체가 3곳, 그리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역참 마을로 번창했던 당시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옛 마차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